축산 뉴우스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 정기총회 및 특별세미나

-한국가금학회 연내 창립키로 결정-

△가축위생 연구소에서 열린 WPSA-K 세미나

WPSA 한국지부(회장 오 세정) 정기총회 및 특별세미나가 지부회원 등 관계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 월 12 일 안양가축 위생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먼저 이날 오후 2 시에 시작된 양계기술세미나는 심포지움 형식으로 진행, 채란계의 수익성향상방안 등 3 가지 주제가 발표되었으며, 이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제 1 주제로 「채란양계업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사양 및 경영관리 방안」에 대하여 발표한 김 영옥부장(퓨리나 양계개발부)은 '15 년전에 축산업의 3/4 을 차지하던 양계업이 최근에는 1/4 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의 원인으로 수익성 저하, 질병대책 및 경영기술의 미비 등을 들었다. 또한 이들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으로서 햇닭의 중요성 강조, 수익성향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 계란의 시장유통지원, 사양가의 경영능력 향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제 2 주제로 「한국 브로일러양계의 합리적 경영기술」에 관해 발표하는 자리에서 신정일사장(구량랜드 육계경영)은 한국 양계산업의 특징과 83 년 이후의 여러가지 불황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적정사육규모 및 경영지침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유통문제에도 언급, '유통체제의 확립은 불가피하나 그 과정상 생산자의 희생이 너무 커서 시간적으로 이를 단축시키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경록상무(천호부화장 가금질병연구실)는 「가금 위생관리기술 향상방안」에 대하여 설명했다. 그는 '최근 질병발생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양계경영에 있어서의 그 비중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하여 방역체제의 계열화 실시를 제안하는 동시에 양계인 각자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계속하여 오 상무는 슬라이드를 통해 천호부화장

의 위생관리업무 실태를 소개하였다.

한편 속행된 정기총회에서는 회무보고, 결산보고, 이사회결과 보고 등이 있은 후 안건토의에 들어갔다.

이날 안건토의의 중심의제로 한국가금학회를 결성하라는 의견이 생산자측에서 강력히 제안되었으며 학계측의 즉각적인 호응을 얻어 결의안으로 채택되었다. 한국가금학회창립에 관한 세부사항은 집행부에 일임키로 결정했으며, 집행부측에서는 12월 19일(화) 오후 2시 무역회관 7층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키로 결정하였다.

가축번식효율 개선 국제심포지움 성황

-전경련회관 대회의실 꽉 메워-

가축번식효율 개선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이 학계, 업계, 관련단체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1월 18일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축산학회가 주최하고 한국가축번식 연구회가 주관한 이번 심포지움은 박 항균 한국축산학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이 득룡 축협회장의 축사, 정 영채(중앙대)교수의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속행된 심포지움에서는 한국가축 번식효율의 현황과 문제점, 조기 임신진단법, 가금인공수정, 동결정액 제조 및 보존, 수정란이식 등 번식분야의 다각적인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오전일정을 마친 후에 가축번식연구회의 총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좌장단: 이 용무 · 권 종국

「한국가축번식효율의 현황과 문제점」, 박 항균(경북대 농대)

「생식의 면역학적 제어, 투명대항원 및 H-Y항체를 중심으로」, 角田辛生(일본 국립축산시험장)

「가축번식효율 증진을 위한 임신진단법」, 정 영채(중앙대 농대)

△제 2 좌장단: 김 영묵 · 이 계승

「가금인공수정을 저하에 대한 대책」, Dr. B Howarth (미 조지아대)

「돼지 동결정액의 제조와 이용」, 임 경순 (서울대 농대)

△제 3 좌장단: 이 재근 · 김 정익

「포유동물 수정란의 동결보존」, Dr. C. Polge (영국 축산시험장)

「수정란이식의 산업화방안」, 정 길생 (건국대 축산대)

△제 4 좌장단: 배 대식 · 이 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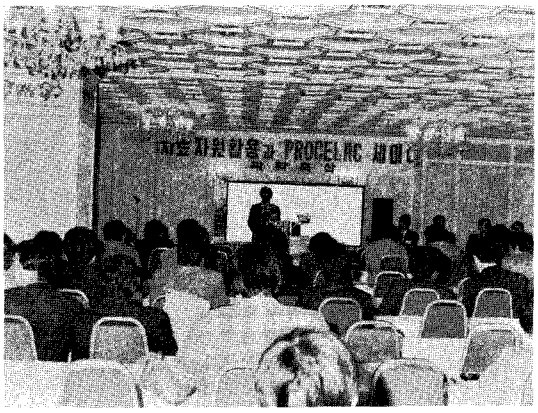
「면양 및 소 수정란의 미세조작수법」, Dr. C. M. Wiladsen (영국 축산시험장)

「소와 돼지에서의 발정관찰과 이상발정의 대책」, 김 창근(중앙대 농대)

△종합: 정 길생(한국가축번식연구회 편집위원장)

사료자원 활용과 프로세락 세미나

-서울 롯데호텔, 부산 문화관광호텔-



과학축산(대표 이 태일)은 지난 11월 15일에 서울 롯데호텔 사파이어룸, 16일에 부산 문화관광호텔 그릴에서 각각 관련업체 및 양축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 운기차장의 진행으로 사료자원 활용과 프로세락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강사로 나선 한 인규박사(서울대)는 「사료섭취량 증가대책」에 대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동물성 단백질 생산이 절실히 요구되며 아시아는 사료식품(동물성 식품)생산이 어려우나, 인구, 토질로 보아 동물성 단백질 생산이 유망하다'고 말하고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료섭취량 증가대책으로 원료사료의 신선도 유지, 설탕 및 당밀의 사용, 유제품의 이용, 비타민과 광물질의 충분한 공급,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의 공급, 요소 및 항생제 사용량의 최소화 및 스트레스 요인의 제거, 사료의 조리·가공, 반죽사료 급여, 양질조사료의 급여, 기호성 증진제의 사용 등을 들었다. 또한 산란을 5%증가 시키려면 사료섭취량 5%를 증가 시켜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HENDRICKS교수(비엔나대 수의학 병리학)의 「단백질 이용의 향상 및 절약효과와 프로세락에 대하여」에서는 유전적으로 산란율을 높이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또한 스트레스 항생제 과다급여로 인한 미생물의 활동 억제 등은 생산성 향상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역설하였다.

통역은 신 영래 박사(성균관대)가 맡았다.

천광산업 사료공장 준공

천광산업(대표 유 근홍)배합사료공장이 김포군 검단면에 세워졌다.

지난 11월 9일 9개월만에 완공된 이 공장은 일산 200톤 규모의 최신 전자동시설을 갖추었으며 1천톤의 원료를 저장할 수 있는 silo 3기를 설치해 놓았다.

그동안은 오산공장에서 월 4천톤을 생산해 왔다.

삶은 쇠고기 등 연계무역 추진

-아르헨티나, 필리핀, 대만, 에쿠아도르와-

정부는 아르헨티나 등 4개국과 수출입연계 무역을 추진중에 있다.

상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르헨티나와는 기계, 금속 등 공산품을 수출하는 대신 삶은 쇠고기를 수입키로 합의했으며, 필리핀 및 대만과는 비료, 철강제품을 수출하고 대신 바나나를 수입키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에쿠아도르에는 타이어, 기계류를 수출하며 원유와 수산물을 수입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의 수출입연계무역은 무역자유화에 역행한다는 국제여론을 감안, 이를 신중히 추진키로 했다.

농수산물 건조용 전력요금 낮춰

-84년부터 값싼 「農事用」 적용-

동력자원부는 지난 11월 28일 전력요금규정을 개정, 농수산물 건조용 전력요금을 낮추기로 했다.

이는 현재 산업용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곡물, 버섯, 인삼, 오징어 등의 농수산물 건조용 전력에 대하여 84년 1월부터는 부담율이 적은 농사용 요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데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김, 고추, 잎담배의 건조와 양파 등의 저온보관을 위한 전력에 대해서는 산업용 전환계획을 변경, 계속 농사용 요금을 부과키로 했다.

83 하바드 국제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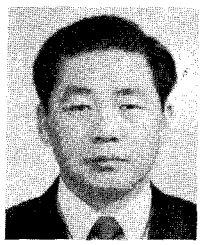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 300여명 참석-

(이 상윤사장)

(福岡 회장)

(黃 子謙 회장)

(오 세정교수)


(박 근식박사)

지난 11월 23일 신기농장(대표 이 상윤) 은 한국, 일본 대만 등 300여명이 참석 초만원을 이룬 가운데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83하바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조성남부장(신기농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이 상윤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국내 양계산업의 불황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양계인 모두가 일치단결하는 일이며, 일본, 대만 등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정부와 양계인이 단합하여 슬기롭게 이겨냈다」고 말하고, 오늘의 우리 모두가 소비촉진과 생산물 조절, 생산비 절감 등으로 불황을 타개하자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일본 野澤組(株)의 石田福吉부장은최근 미국의 하바드농장의 현황을 소개했다.

오 세정교수(건국대)는 「한국 양계업의 현황」에서 해방전 2백만수에서 현재 5천7백만수로 팽창되었고 사육호수는 56년 1백1십만가구에서 64만호로 감소되었는데 이는 과거 겸업양계에서 전업과 기업형태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계란소비는 일인당 145개에서 91년에는 217개로, 닭고기소비는 현재 2.5kg에서 91년에는 4kg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최근의 브로일러 불황은 숫자의 급증이 큰 원인으로서 앞으로 소비촉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양계업 현황」에서 일본 하바드협회 福岡達登회장은 일본의 경우 「80년 산란계 불황시 정부와 생산자중심으로 한 생산량조절로 호황을 누릴 수 있었으며, 양계인구 증가로 현재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육류소비형태로 볼 때 쇠고기는 증가추세이고 돼지고기는 79~82년에 비슷한 수준, 닭고기는 젊은 층의 관심으로 약간씩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은 1979년이후 고정적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최근 유통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접국의 정보교환 등 공동관심사를 논하는 이번 세미나는 매우 큰 의의

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화민국 양계협회 黃子謙회장은 「대만의 양계현황」에서 산란계가 천 4 백만수, 계란은 1 인당 90 개를 소비하며 오리알을 포함하여 250 개이고, 사육호수는 1 천 6 백42 호, 사육규모는 1 만수이하가 1 천가구 (64.9%), 1 만~5 만수 533 호 (32.4%), 5 만~20 만수 41 호 (2.5%), 20 만수이상 3 호 (0.2%)로서 지역적으로 중남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브로일러는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소비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육형태도 크게 다르나 하바드가 주종이며, 연간 브로일러 소비는 5 천 7 백만수 (12 만 4 천t)라고 말했다. 연간 브로일러 출하수는 1 억 4 천만수로 생체 36 만 4 천톤이며 국민 1 인당 연간17.5kg (8 마리)를 소비하고 있고, 사육규모는 5 천수이하가 1,875 호 (59.6%), 5 천~1 만수가 984 호 (26.6%), 1 만~5 만수가 820 호 (22%), 5 만~20 만수가 20 호 (0.5%), 20 만수 이상이 2 호 (0.04%)라고 밝혔다.

이후 오 세정교수 (건국대)의 「육용종계및 실용계관리 개선방안」과 박 근식박사(안양가축연구소 검정화학과장)의 「육용종계 및 실용계의 위생관리」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대 성황리에 세미나가 끝났다.

미농무성, 84 년도 농경계획 발표

미농무성은 PIK에 따른 농경지 감축과 이상기후 등으로 해서 사료곡물작황이 당초 예상보다 적은 4 천 1 백78 톤 (작년보다 30% 이상 감소)에 불과할 것으로 발표하고, 이에 따라 재고량이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 PIK 보다 곡물감산효과가 낮은 농경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농무성의 이 발표에 의하면 보유농경지의 10%에 해당하는 면적을 경작 가능한 상태로 보존할 것과 금년도 농작물에 대한 농가보유비축제도의 즉각적인 채택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수확기의 일시적 공급으로 인한 가격폭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농가보유비축제도는 9 개월후에 타당성을 감안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초지조성 및 관리 세미나

-초지조성 확대의 불가피성 강조돼-

지난 11 월 29 일 「초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세미나」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김 보현) 주최로 농경연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요사료의 국제가격 상승과 계속 증가되고 있는 수입사료량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초지조성의 필요성 및 개발대책이 주로 거론되었다.

주제발표자들은 올들어 옥수수, 콩 등 주요사료의 국제가격이 16~51% 이상 오르는 등 계속 상승추세여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개발된 45 만ha의 산지를 초지조성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는 사료자급은 물론 연간 6 억~7 억달러의 외화를 절약하는 효과도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공유림의 초지조성을 허용하는 한편 단지 초지개발을 적극 유도하도록 건의했는데, 현재 전국 6 천 9 백10ha의 초지 중 69%가 5 ha 미만의 협소한 초지이고 30ha 이상의 대단지초지는 3 %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농수산부와 축협중앙회에서 후원하였다.

농수축산물 표준거래단위 설정 공청회

-품목별 규격, 포장자재 통일등-

농수산물 표준거래단위 설정을 위한 공청회가 농어촌개발공사(대표 김 태경)주최로 11월 28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 동근 농수산부유통과장, 성 기웅 농개공유통사업부장, 이 래수 농협유통부차장, 오 세득 수협유통부장, 장 세린 축협유통부장 등이 발표자로 나서서 정부가 마련한 시안을 설명했으며, 이어서 농민, 어민, 상인,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주부대표 등이 모두 토론자로 참가하여 각기 나름대로의 개정시안을 내놓았다.

이번 시안은 농수축산물의 유통능률 향상, 공정거래 실현, 농어민의 수취가격 제고, 통계및 물가조사기준의 통일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산물 23개 품목, 수산물 10개 품목, 축산물 4개 품목 등 총 37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발표된 시안에 대하여 토론 참가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한두가지씩 보완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소비자단체의 이 정자씨는 핵가족화 등 생활구조가 편의화하고 있는 만큼 포장단위를 작게 해야 하고 실행과정상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매일경제신문의 윤 옥섭기자는 표준거래단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저울의 통일문제가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건국대 윤 효직교수는 표준거래단위 설정에는 편의성, 정확성, 객관성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과거의 척관법을 그대로 미터법으로 환산하여 개념상의 혼란을 막자고 했으며, 소비자 기호에 맞게 여러가지로 포장단위를 다양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토대로 마련된 시안을 보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본회에서는 김 재덕기자가 참석 하였다.

국민식생활개선 세미나 개최

-대한한의사협회 주최로 신라호텔에서 열려-

국민식생활개선 세미나가 한의사, 한의학계 교수, 업계 관련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차 봉오) 주최로 11월 18일 신라호텔 다이나스티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한의사 및 한의학교수 11명이 참가, 1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이중임 준규씨(대전대학부속 한방병원)는「동서의학적 食養法과 돼지고기·닭고기」에 관해 발표하면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에서의 식이요법의 특성을 말하고 닭고기·돼지고기의 기피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영양면에서 볼 때 칼로리와 단백질은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가 비슷한 수준이며, 인의 함량은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의 순으로 많다고 말했다. 또한 경희대 송 일병교수는 「少陰人과 닭고기」에서 한의학적 측면에서의 닭고기의 효능에 관해 설명했다.

이밖에도 한의학적 측면에서 본 돼지 고기의 효능에 관한 수편의 주제논문이 발표되었다.

「소화기질환과 돼지고기」, 최 서영·김 소운 (경희 의료원 한방병원)
「동서의학적 식양법과 돼지고기·닭고기」, 임 준규 (대전대 부속 한방의원)
「돼지고기를 사용한 한의학 방제에 관한 문헌 고찰」, 강 병수 (원광대 한의대)
「돼지고기와 풍병」, 김 동필 (서림한의원)
「성인병과 돼지고기」, 신 재용 (해성한의원)
「돼지고기와 관련된 임상예」, 맹 화섭 (맹 화섭한의원)
「四象체질적으로 돼지고기는 어떠한가」, 노 을선 (대전 국제한의원)
「소음인과 닭고기」, 송 일병 (경희대 한의대)
「비만증과 돼지고기」, 박 성춘 (현대한의원)
「식생활과 성인병 예방」, 유 동준 (경희대 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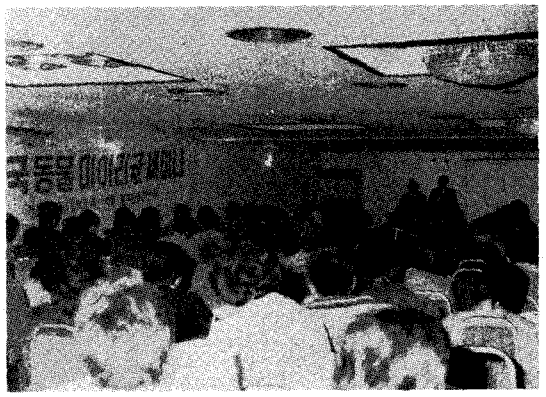
한국동물약품 미야리균 세미나

-「미야리균 II 588」의 특징 소개-

서울지역 미야리균 세미나가 한국동물 약품〈주〉 임직원, 업계 관련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25일 청량리 맘모스호텔에서 있었다.

먼저 동사 김 호석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최근 축산업계가 겪고 있는 불황 타개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열게 되었다」고 말하고 약품 선택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 호석회장의 통역으로 「미야리균과 가축의



생산성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한 유자와씨 (미야리산〈주〉 수석연구관)는 미야리균의 연구결과 및 특성, 야외실험 결과 등에 대해서 슬라이드와 함께 설명했다. 영화상영이 있은 후 동사 송 원 상무는 「미야리균의 특징과 축산 응용효과」에 대하여 발표하는 자리에서 「미야리균 II 588」의 특장점을 소개하는 한편 가축에 응용할 경우의 경제적 이익을 분석하였다.

한편 동사는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청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수원 등지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돼지설사 백신개발

-가축위생연구소 개발, 내년에 대량 생산-

돼지의 대장균성 설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돼 내년부터 보급되게 되었다.

그동안 가축위생연구소는 새끼돼지의 설사로 인한 큰 피해를 막기위해 백신개발에 착수, 지난 11월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많은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야외실증시험을 한 결과 겔백신의 경우 새끼돼지에 60%내외, 유성백신의 경우 70% 내외

의 방지효과를 얻었으며, 임신 모돈에 대해서도 접종전의 20%에 비해 접종후에는 5~7%로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Pfizer 화이자, 전국판매점 세미나

-11월 18·19일 쉐라톤워커힐서-

한국화이자(대표 김 중배) 주최 제9회 전국판매점 세미나가 지난 11월 18·19 양일간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전국 가축약품대표, 관련자, 동사 농축부 전 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 첫날에는 동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주요제품이 슬라이드를 통해 소개되었으며 「메카독스 프러스」에 관한 영화가 상영되기도 했다.

이어 송 기철교수는 세계경제 변화에 따른 한국경제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김 봉구교수는 한국경제개발의 모형을 소개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과정을 설명하고 80년대에 들어와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농축산업의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날에는 「네오테라마이신」에 대한 영화상영이 있은 후, 전 정환교수의 「국제관계와 한국의 진로」에 관한 강연이 있었다.

주제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콕시스타크」제품소개, 박 호인 과장.

「테라마이신」제품소개, 김 세빈 과장.

「메카독스 프러스」제품소개, 박 호인 과장.

「우리나라 경제와 앞으로의 전망」, 송 기철 (고려대) 교수.

「한국경제와 농축산업의 과제」, 김 봉구 (고려대) 교수.

「국제관계와 한국의 진로」, 전 정환 (국방대학원) 교수.

유제품생산 계속 늘어

한국유가공협회(회장 윤 쾌병) 조사자료에 따르면 금년상반기 원유생산량은 작년동기대비 23.3%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백색시유의 경우 학교급식확대 등으로 가장 큰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 분유 중에서는 탈지분유, 전지분유가 신장폭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치즈, 버터 등도 판매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민 부채 계속 늘어나

-작년보다 43.6% 증가, 단기자금 치중-

농협이 지난 11월 21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농민들의 농협부채는 1조 4천 9백 69억원으로 79년에 비해 약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무려 4천 5백원(43.6%)이 증가한 것으로 이중 단기자금이 3천 8백억원을 차지해 단기자금 치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농민의 전 부채 가운데 70%가 농협자금이고 이밖에 은행, 보험회사, 마을금고, 고리채, 계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부채증가의 주원인으로는 농촌임금의 상승, 각종 영농자재비 상승, 연체이자의 누적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83 풍년제 큰 수확
-전국각도 명산물, 향토음식 전시·직매돼-

농민들의 잔치 「83 풍년제」가 지난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여의도 특별전시장에서 열렸다.

KBS, 농·수·축협, 농기구협동조합이 주관한 이번 풍년제에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각도 명산물전시장, 각단체 전시관, 농수축산물직매장, 향토음식판매장, 삼양식품전시장 등이 마련되어 전국 특산물전시와 함께 현장에서 직접 판매되었다.

축산물의 경우 축협에서 축산역사관과 가축사료관을 설치, 축산변천사와 가축사육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놓았으며, 서울우유관을 마련하여 매일 5천명씩 우유를 무료로 나누어 주기도 했다. 또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에서는 계란소개 책자와 함께 폴리에스텔포장 계란을 판매하였고, 식생활개선관에서는 축산물조리강습과 시식회도 가졌으며, 축산물전시관에는 각종 육제품이 판매되었다.

약령시 개장 등 전국특산품 소개·판매 외에 농산물품평회도 가진 이번 잔치에는 연일 발디딜 틈없이 수많은 인파가 몰려 총 4백만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추정되며, 상품판매액도 2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금학회 창립총회

13년간의 역사를 가진 세계가금학회한국지부를 모체로(WPSA-K) (지부회장 오 세정) 한국가금학회가 창립된다.

학계 연구기관 업계의 뜻있는 분이면 회원이 될 수 있다.

한국가금학회에서는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의 업무도 대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번 한국가금학회창립 총회에 양계인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일시 83.12.19(월) 오후 2시

장소 무역회관 7층

※총회가 끝나면 조촐한 축하파티도 가질 예정이다.

업계단신

제10차 국제번식학회 개최안내: 한국번식연구회(회장 박 항균)와 한국축산학회에서는 84년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일리노이주 샴페인에서 개최되는 제10차 국제번식학회에 대표단을 파견코자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참가신청 대상은 한국축산학회 및 한국번식연구회 회원외에 축산관계업체 임직원이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다.

○ 참가신청일자 및 경비

	마 감 일	등록비	신청금	합 계
1차	1983.12.22	163,000	100,000	263,000
2차	1984.4.30	203,750	100,000	303,750

○ 신청 및 경비 납부처: 롯데관광〈주〉 (273-4161~9)

한편 동학회는 내년의 번식학회를 전후로 한 (84.6.8~6.24) 여행단도 신청접수 중에 있다.

○ **고대 축산과 콤퓨터세미나 개최:** 식량개발대학원 축산과에서는 83년도 특강계획에 따라 「축산분야에서의 콤퓨터의 활용」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키로 했다.

12월 12, 13 양일간에 걸쳐 열릴 이번 세미나에서는 슬라이드를 통한 강의와 동시에 콤퓨터 실제조작 시범도 있을 예정이어서 양축가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발표내용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12일 오후 1시;

「Computer의 기초이론」, 김 원경(KAIST 연구원) 「축산에서의 컴퓨터의 응용」, 정 영근(KAIST 연구원)

●13 일 오후 1시;

「Persenal Computer 이용에 의한 판매관리」, 김 창헌(KAIST 연구원) 「사료배합표 작성을 위한 컴퓨터의 활용」, 김 영남(KAIST 연구원)

●수강료; 20,000원(교재대 포함)

●연락처; 94-2641 (324), 고려대 식량개발대학원

○ **아틀란타 국제양돈 show:** 12월 1일부터 3일까지 미국조지아주 아틀란타 Civic Center에서 열린 제3차 국제양돈무역박람회에 박 준영(한협종계장)사장, 김 성경(대지농장)사장, 김 정웅(다다상사)전무, 백 우현(다다상사)상무 등이 참석.

이번 박람회에는 300여사에서 기술장비를 출품하였으며, 종축전시, 양돈경영세미나, 돈육바베큐 시범 등이 병행되었다.

○ **동방유량〈주〉(대표 신 명수):** 해표사료로 충부지역 및 충청지역에서 계속 신장일로에 있는 동사는 사료사업부 조직강화와 원료구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을 보강했다.

• 동방사료 구매차장: 이 상호(전 은성사료)

• 사료사업부 판매관리담당: 단 영기(전 부국사료)

• 용인영업소: 송 희돈(전 총무부)

한편 동사는 사료위탁점 및 대리점과의 유대강화와 판매전략 수립을 위하여 지난 11월 11일 벽제 늘봄농원 회의실에서 해표사료 위탁점 회의를 가졌다.

○ **과학 시스템(대표 박 만후) 상호변경:** 지금까지 과학축산시스템으로 축산업무를 담당해 오던 동사는 최근 양축기구 외에도 식품업, 무역업 등 취급업무가 다양해짐에 따라 상호를 과학시스템으로 변경하였다. 연락처는 종전과 같다. (445-0212, 1886)

한편 동사는 확장되는 업무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1월 15일자로 하 철규상무(전 천호부화장 생산부장)를 영입하였다.

○ **녹십자수의약품〈주〉(대표: 장 인상):** 합성항균제「이메킬」을 시판중이다. 불란서「아파메리우」사가 개발한 항성항균제「이메킬」은 설사병, CCRD, 수란관염, 병아리 제대염을 일으키는 대장균, 추백리, 닭 디프스 파라티푸스를 일으키는 파스튜렐라균, 코라이자와 CRD를 일으키는 헤모필러스균, 빠다리병과 관절염을 일으키는 포도상구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한편 여직원의 모임인 녹우회(회장 이 선호)는 10월 23일 퇴계로 3가 썬다방에서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을 열었는데 동사 중역진과 업계인사 등 40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군자교회의 송암교육원을 방문, 칼라TV, 학용품 등을 전달하고 신림장학회에 장학금을 기탁한 바 있다.

○ **과학축산(대표: 이 태일):** 동사는 현재 양축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복합항생항균제인 「오라신」의 포장을 현행 1kg과 병행하여 5kg용 용기를 개발, 12월 중순경 출하할

예정이다.

또한 동사는 복합항생물질 수용산인 「페소마이신」을 개발, 11월말부터 시판하고 있다.

한편 동사는 11월 4일 창립 6주년을 맞아 사내에서 간단한 기념식을 가진 뒤 2박 3일동안 전남무주 덕유산에서 모든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신강화훈련과 사원복리후생 증진책에 대한 토론을 가진 바 있다.

○ 선진사료〈주〉(대표: 이 원복): 업무의 조직강화와 사세확장으로 지난 11월 1일 영업부와 생산부에 사원을 특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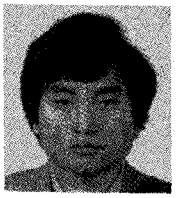
◇ 영업부;

이 원식(전 양돈협회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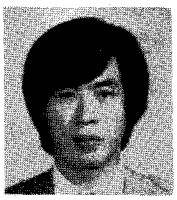
이 한주(충남대 축산과 졸)

◇ 생산부;

김 완희(충남대 축산과 졸)



(이 원식씨)



(이 한주씨)

(김 완희씨)

○ 이글케미칼(대표: 강 승조): 동사는 영업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영업부에 10월 20일부로 5명의 신입사원 및 경력사원을 보강하였다.

◇ 영업부;

이 성일(경희대 화학과 졸)

류 종대(전 한국화이자 근무)

최 성묵(충남대 축산과 졸)

황 원호

◇ 개발부:

정 연근(조선대 화학과 졸)

한편 동사는 양축가를 위해 신제품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돼지하리 치료 및 폐염예방을 겸한 「카바독스」와 비타민제제 「펜타솔」로서 12월부터 시판중에 있다.

○ 퓨리나코리아 석 준호·이 현범이사: 사료원료곡물 확보를 위해 지난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태국 사료업계를 시찰, 옥수수 시장 등을 파악한 후 귀국했다.

○ 아틀란타 세계가금박람회 내년 1월 개최: 미국 조지아주 Atlanta에서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세계가금무역박람회가 84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열린다.

지난번 박람회에는 본회 회장단을 비롯 종계장대표 등 40여명이 대거 참석하여 선진양계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이번 박람회에도 많은 사람이 참가하여 선진양계기술 및 경영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것은 협회로 문의바란다. (752-6917)

○ 「수의내과학」 발간: 이 방환박사 (전남대)의 회갑을 기념한 「수의내과학」 (대가축; 소, 말, 돼지, 양 편)이 출간되었다.

이 방환교수가 집필하고 수의내과학교수협의회가 분담 집필한 이 저서는 「Veterinary Medicine」을 참고로 집필자의 경험에 입각한 국내 현실과의 조화를 취하면서 신지견(新知見)을 첨가 집약한 내용으로 46배판 639p, 정가는 18,000원이다.

○ 남양기업(대표: 김 일경): 동사는 농수축산물 저장을 위한 다양하면서도 효율적인 조립형 창고냉동기를 개발, 시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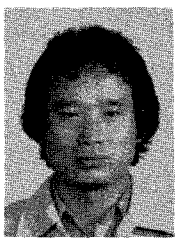
이 냉동기는 30% 정도의 절전효과가 있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많은 유통업체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 만후씨(과학시스템 대표): 서독 MOTAN사, AKO사, EPC사 등과 축산기구제작 기술제휴차 10월 18일 출국하였다가 화란, 스위스 등 유럽지역 축산기구업체 현황을 둘러본 후 지난 11월 19일 귀국.

○ **SF 과학사료(대표: 신 정재)**: SF타이로신-50 및 타이로설파를 판매하고 있는 동사는 원료공급원인 미국 엘랑코회사 후원으로 판매력 강화와 직원자질 향상을 위해 제 2 차 직원 연수교육을 11 월 2 일부터 5 일까지 속리산 관광호텔에서 실시했다.

이 기간중 E. S. P. I. 교육, 직원별 미니마케팅발표 등반대회등을 가짐으로써 직원의 자질과 사기를 고취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 동사 신 중일공장장, 기획부 이 승준과장, 영업부 백 영남과장은 지난 11 월 15 일 미국 엘랑코회사 한국지사 후원으로 일본 및 동남아 동물약품업계 실태파악을 위해 출국, 일본의 사료공장과 농장과 동물약품 제조회사를 견학하는 등 9 일간의 일정을 성공리에 마치고 23 일 귀국했다.


(신 중일공장장)

(이 승준과장)

(백 영남과장)

○ **화성산업(대표: 최 준열)**: 1 억 4 천만원을 투입하여 시간당 2,500수~3 천수 도계가 가능한 현대식 시설을 갖춘다.

이번에 새로 갖추는 기계시설은 일본에서 도입한 것으로 냉동고와 폐수처리 시설도 포함되어 있으며 올 12 월말까지 작업을 끝낼 예정이다.

○ **성원화학(대표: 이 용남)**: 동사는 사세확장에 따른 영업활동 증진을 위해 사료공장 영업 2 부를 신설하는 한편 11 월 1 일부로 사원을 특채하였다.

● 영업차장 박 홍기(전 이글케미칼 영업과장)

또한 동사는 광범위한 속효성 항생제 「폴리마이신」을 새로 개발, 내년 1 월부터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폴리마이신」은 암피실린, 특히 그램음성균에 의한 각종 동물의 설사치료에 효과가 높은 콜리스틴이 복합되어 있어 가금류의 CRD, 코라이자, 빠다리병 등에 주효한 수용산제제라 한다.

○ **한국낙농학회(회장: 김 환경)**: 11 월 5 일 서울농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한편 추계학술세미나도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젖소의 개량방안」, 「젖소개량에 있어서 종모우의 중요성」 등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 **84 년도 육우 6 만두 도입**: 농수산부는 84 년에 육우 6 만두와 젖소 1 만 5 천두를 도입키로 했으며, 지원자금은 복합영농인 경우 50 만원, 저소득마을의 경우 70 만원으로 정했다.

또 5 두이하의 부업규모는 80%선, 6 두이상은 20%선에서 입식하되 도지사의 재량에 의해 조정하도록 했다.

○ **홍성사료 정 태원 사장**: 10월 22 일 출국하여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등지의 축산 및 사료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11 월 4 일 귀국.

○ **한국유가공협회(회장 윤 쾌병) 사무실 이전**: 11 월 30 일자로 아래 주소로 사무실을 이전.

주 소: 서울 강남구 방배동 464-1
(대한곡물회관 2 층)

○ **한국냉장 이용기 이사**: 동사 전 남용 실장, 양 원석·황 연만과장을 대동하고 지난 11 월 17 일 출국. 15 일간 일본과 대만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육가공업계 유통현황을 살핀후 귀국.

○ **홍성사료(대표: 정 태원)**: 이미 생산공정에서 컴퓨터를 활용중에 있는 동사는 전 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키 위해 IBM사와 계약을 체결, 최신기종인 IBM-36을 도입키로 하였다.

이 IBM-36은 올12월말경 설치하여 시험가동을 거친 뒤 84년 2월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 **서울우유조합장에 강 성원씨 취임**: 서울우유협동조합장 이취임식이 11월 22일 동조합 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유윤수 전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10월 25일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임된 강 성원(성원목장 대표)새 조합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중책이 맡겨진 이상 우리나라 낙농기반의 확립과 조합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조합은 또 최근 시련을 겪고 있는 낙농업계를 뿌리내리는 핵심역군은 바로 조합원들이라고 말하면서 조합원 모두가 일체감을 갖고 일할 것을 당부했다.

○ **제일제당 유 무영 상무** : 11월 12일 출국하여 일본, 서독, 미국 등지의 유통업계를 시찰하고 귀국.

○ **한풍산업〈주〉 (대표: 최 죽송)**: 11월 7일자로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

변경전화: 845-1171～4

○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최 죽송) 바둑대회**: 11월 24일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바둑대회를 개최, 한국기원(종로 2가)을 메우는 열기속에서 극기(克己)의 하루를 보냈다.

○ **두산개발〈주〉 유우 도입**: 유우능력개발을 위해 미홀스타인협회에 등록된 고능력유우 송아지 1백두와 임신우 6두를 도입할 예정.

도입가격은 10개월령 송아지가 두당 2,250달러이며 임신우는 9 천달러.

○ **녹십자수의약품〈주〉 (대표: 장 인상)**: 동사는 지난 11월 17일 공장에서 서울·경기지역의 약 50여개 약품도·소매상 대표를 초청, 백신 제조 시설의 견학과 「돼지·가금의 질병」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동사 공장장 김 진구 이사의 「백신 제조과정 및 사용법」에 대한 강연 및 시설 견학을 시작으로 화학부 박 언기 차장의 「일반 약품의 화학적 이론 및 배합과 금기」, 가축위생연구소 권영방연구관의 「최근 돼지 질병의 발생 동향과 예방대책」, 서울대 김 선중박사의 「가금용 백신 사용법과 면역형성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발표가 계속되었다. 세미나후에는 강사와 도·소매상 대표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칵테일과 만찬을 즐기며 담소를 나누었다.

세미나 교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동사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동사는 지난 11월 21일부로 윤 익현(전 한국 고킹)씨를 기획부장으로 특채하였다.

○ **대한사료〈주〉 (대표: 김 상태)**: 동사는 사내외의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고취하고자 11월 12, 13 양일간 그린파크 호텔에서 사원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적극적인 정신자세
- 커뮤니케이션 게임
- 직장인의 정신건강
- 두번 죽지 않는다
- 목표관리

○ **현대양계사(대표: 김 중곤)**: 지난 12월 5일 창간15주년을 맞이하여 여의도 잠사회관 9층에서 칵테일파티를 가졌다.

유관기관 업체 등 100여명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 경주 홍성부화장(대표 : 정 상태): 동부화장은 화란「유리 브리드」사로부터 하이브로 GPS 및 PS를 도입하였다.

지난 9월 30일에는 PS(Hisex Brown, Hisex White)를 도입했으며, 10월 14일에는 GPS를 도입하였다.

○ 두산곡산〈주〉(대표: 이 채언): 그동안 양축가들의 관심속에「두산곡산 축산경영」을 발간하고 있는 동사는 12월호에 겨울철 산란계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 미국 Ohio 주정부 관계관 내한 리셉션: 미국 오하이오 주정부, 주의회, 및 농업단체대표 내한환영 리셉션이 12월 1일 오후 6시 롯데호텔 샤롯에서 있었다.

농업부문을 통한 한미 양국간의 우의를 다지기 위한 이날 리셉션에는 USFGC의 박 영인 한국지부장, ASA의 이 경원 한국지부장, 주한 미대사관의 제임스 후레크만 농무참사관 등 양국에서 많은 인사가 참석하여 담소를 나누었다.

○ 소의 복합호흡기병 치료제: 도입우의 복합호흡기질병(일명 수송열 Shipping fever syndrome)에 대한 치료제가 국내에 소개되었다. 미국 콜로라도 혈청회사에서 생산한 면역 혈청제제인「Respiragen」을 가축위생연구소 세균과 박정문, 윤 용덕박사팀이 가축검역소 서울지소에 계류중인 도입우를 대상으로 효능시험을 실시한 결과 우수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축위생연구소 시험결과에 따르면 대조구에 비하여 70% 이상의 현저한 치유율을 보였으며 이것은 앞으로 도입우의 폐사율을 줄이고 일반 야외의 호흡기 질병을 치료하는데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수입판매원은 범한약품상사(대표 계 봉구)로 내년 1월중 수입예정이다.

○ 축협 은행업무 개시: 축협중앙회(회장이 득룡)는 12월 1일 여의도 영업부 현장에서 은행업무 개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로써 축협은 당좌계정, 대출거래, 국고수납 등 각종 약정체결과 대리업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에는 전경련회관 난초홀에서 이 득룡회장, 농수산부 관계관, 단체 및 업계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축연을 가졌다.

○ 한일농원(대표: 차 두홍): 지난 11월 1일과 15일부로 신입사원을 특채하여 교육중이다.

정 윤교(전국대 축산과졸업예정)
정 규범(안성농업전문대 졸업예정)
김 성기(상지실업전문대 졸업예정)

한편 동사는 지난 10월 28일에 칙마스타 6대, 11월 25일에는 비터쟈인 6대 등 완전자동부화기를 도입, 우량 종계와 실용계를 공급하게 되었다.

또한 국내 양계산업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11월 24일에 홍콩에 육용실용계 5천수를 수출하였으며, 앞으로도 주 1회씩 6주에 5만수를 수출할 계획인데 국내 불황이 계속되면 수출을 늘릴 계획이다.

• 질서는 징검다리 건너뛰면 사고난다
• 어떠랴 한번쯤 그게 바로 부패심리
• 보란듯이 벌인잔치 알고보니 빚투성이